

■ <요약> 비즈니스 패러다임의 본질적 변화

- (새로운 현상) 경제 질서를 구축하는 패러다임에 일대 변혁이 일어나고 있음
 - 최근에 들어 아무런 경쟁력이 없을 것 같은 농업, 에너지, 중고 서적과 같은 분야에서 새로운 경제방식으로 성공을 구가하는 경영인들이 많음

- (기계론적 사고의 한계) 기존 산업 사회의 경제 패러다임은 뉴턴적 기계론에 기초한 것이었음
 - 아이작 뉴턴은 자연법칙을 설명함에 있어 산출이 투입들의 조합으로 나타나는 기계론을 창시했고, 이 원리는 사회, 종교, 경제 운용의 중심적인 사고가 되었음
 - 하지만 기계론에 얽힌 경제학은 단순인과론에만 집착하여, 외채 위기와 내부자 거래 부정과 같은 불규칙적 경제 현상에 대한 설명력을 지니지 못함

- (패러다임 변화의 계기) 경제 패러다임 변화는 91년 걸프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음
 - 이때 실현된 대대적인 다운사이징에 의해 수많은 화이트칼라들이 실직하였으며, 이들은 그 당시 급속히 발달한 전자통신 기술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미국의 경제 발전을 주도함으로써 양적 투입·산출 논리에 의한 이전의 경제 원리를 무력화시키게 되었음

비즈니스 패러다임의 본질적 변화























이 글은 *The Wall Street Journal* 지 1999년 2월 26일자, 'A New Model for the Nature of Business: It's Alive' 컬럼을 근간으로 하여 구성된 것으로 최근 들어 발생하고 있는 경영전반의 패러다임 변화를 그 근저에서부터 살펴본 것임

신구 패러다임의 비교

두 가지 경영관과 그 함의

기계론적 모형

자연모형

과학자	
 뉴턴 갈릴레이 데카르트	 아인슈타인 양자물리학자 혼돈이론가, 복잡계 이론가
중심 작동 원리	
 기계 시계	 유기체 생태학
전략 목표	
 청정 설계 문양 효율화	 환경 적응 연속적 진보
문화적 표현 양태	
 클래식 음악 르네상스 미술	 블루스와 재즈 포스트모던 아트
리더십의 함의	
 명령과 통제	 고용자들의 자율성 비전의 형성
가치의 원천	
 토지 에너지 물질	 정보 지식
경영 관리의 목표	
 규모의 경제	 목적의 조화
조직구조	
 위계 질서	 자율적인 구조
조직 구성 원리	
 노동분업	 마인드의 융합
경제주권의 원천	
 생산자	 소비자
주요 경제적 제약	
 자본	 창의성

□ 경영 철학의 변화

- 최근에 들어 경제 질서를 구축하는 패러다임의 일대 변혁이 일어나고 있음
 - 최근에 들어 아무런 경쟁력이 발견되지 않을 것 같은 농업, 에너지, 중고서적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경영방식으로 성공을 구가하는 경영인들이 많음
 - 이러한 성공 사례들은 우연이 아니라, 기존의 글로벌화, 기술혁신 등의 개념을 뛰어넘은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근거한 것임

□ 새로운 정신 모델의 등장

- 최근의 경제 변화는 정형화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단일성’에 대한 인간 생활의 반발로 볼 수 있다고 보여짐(제어할 수 없는 일종의 엔트로피)
 - 경제윤리학 권위자인 피츠버그 대의 윌리엄 프레데릭(William C. Frederic) 교수는 인류학과 경제학 이론을 배경으로 경제 활동을 단순한 인간 활동의 일부가 아니라 인간의 삶 그 자체라고 역설하고 있음
 - 그는 경제성을 추구하는 과정은 생존, 성장, 발전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역설 하면서 인간을 구성하는 유전자 자체가 곧 경제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역사상 통치자들은 인간의 경제활동을 억압하려 시도해왔지만, 역사에 있어 효율성의 달성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인간의 경제성과 창의성에 의존하는 것임

□ 기계론적 사고의 재편

- 인간이 본원적으로 경제성을 지니고 태어난다면, 왜 기업들이 비인간화되는가에 관한 해답은 뉴턴의 기계론에 그 연원이 있음
 - 아이작 뉴턴은 자연법칙을 설명함에 있어 산출이 투입들의 조합으로 일치되는 기계론을 창시했고, 이 원리는 사회, 종교, 경제 운용의 중심적인 사고가 되었음
 - 산업사회에서는 이러한 이론 모형들이 제대로 작동하였는데, 철도와 증기기관 시대에는 ‘대규모화’가 기업 경영의 절대원리였음
 - 중소기업의 다원화된 기능들은 중앙집권적 기업구조에 편입되어야 했으며, 집권화를 통해 절감된 비용은 고이윤으로 직결되었고 이는 더욱 많은 자본을 끌어 들였음(대량생산→대량판매→매스미디어로 이전되는 체계)
 - 이 선형적이고 기계적인 모형은 경제전반을 지배하는 원리였는데, 프레데릭 테

일터(Frederic Taylor)의 표현대로, 모든 생산부분의 합은 전체 개체의 가치와 일치되었고 모든 두뇌 작업은 생산과정에서 배제되었음

- 하지만 뉴턴식 패러다임은 방정식의 정해를 찾는 데는 적합했으나 광대한 자연 법칙, 생물의 성장, 문화의 발흥과 쇠망을 설명하지 못했음
 - 산업사회에서는 통제와 집권의 카리스마를 갖춘 경영인들의 시대였고, 대학의 경제학과와 MBA과정에서는 작업장의 효율을 증진시키는 수량적 접근법을 가르치면서 시스템을 최적화 및 효율화하는 데 관심이 있었음
 - 최적화는 요소들의 정확한 산정을 필요로 했고, 정확한 측정은 곧 이윤으로 연결되었음. 이전 세대의 경영자들은 80년대 말까지도 주식가치 극대화라는 것으로 그들의 목적을 구축했고 이는 가치의 모든 다른 측면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았음
 - 그러나 80년대 미국 저축대부조합의 파산, 외채위기, 내부자 거래 스캔들은 기계론적 경영관의 한계를 보여주었음
 - 인간은 천부적으로 혁신과 협력, 경제화의 자질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사회와 기업의 중앙 통제 없이도 전세계의 질서를 창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커지고 있음

□ 패러다임 변화의 계기

-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게 된 계기는 91년의 걸프전이었음
 - 이 시기에는 80년대의 과도투자의 후유증으로 '다운사이징' 열풍이 불었고, 이에 따라 현재 전세계 틈새 시장을 꿰뚫고 옐로우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많은 지식노동자들을 산업전선에서 추방하였음
 - 그러나, 경제학의 옛 원리들은 걸프전 이후 8년간의 호황을 설명하지 못함. 경제력과 의사결정권은 이제 다양한 인구로 분산되었고 더 이상 경제 일부분의 실패가 다른 부분을 침체에 빠뜨리는 상황을 감소시킨 것임
 - 이는 91년부터 급속히 전개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많은 경영인들을 단순성으로부터 해방시켜 그들의 침실에서도 신경계에 도전할 수 있게 만든 데 원인이 있음
 - 찡크 디젤(Chank Diesel)이라는 미국의 가난한 디자이너는 웹을 통해 폰트 디자인을 판매하여 성공하였는데, 이는 기계론적 조직구조 하에서는 불가능한 것임
 - 이제 기계론적 사고가 사라지고 경제 활동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잡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임

■ 양성수 연구원 yangs@hri.co.kr ☎724-4017